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박흥영 (충북대학교 교수)

1946년에서 1976년의 시기,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해 원조를 활용함으로써 원조이념의 부재, 상업원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기 일본 ODA는 아시아 중시, 수출촉진, 개발수입, 경제안전보장 등의 외교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국의 ODA도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실리우선의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리보다는 장기적인 한국의 '국격'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외교의 정통성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실리우선의 ODA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ODA의 우선 해결과제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양적 확대이다. 그 바탕 위에 지역적 안배를 통해 전략적으로 한미협력, 국제협력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ODA는 장기적인 전략(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전략도 없이 일회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은 원조대국의 1/10 정도의 액수를 ODA로 제공하고 있다. 적은 액수로 한국 ODA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원조의 기동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 재난 구조 등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은 ODA의 총괄기획, 평가검토, 수정/보완의 토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처 간 생색내기와 힘겨루기가 선행한다면 그나마 적은 액수의 ODA도 빛을 바랄 것이다. 따라서 토털 시스템 구성에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작용해서는 안된다.

목 차

1. 문제제기
2. 냉전기 일본 ODA 정책
3. 탈냉전기 일본 ODA 정책
4. 글로벌화와 일본 ODA 정책
 - 가. 글로벌화와 일본 ODA: 1995-2000
 - 나. 글로벌화와 일본 ODA: 2001-2005
5.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

1. 문제제기

-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 정부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것인가? 일본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평화와 행복이 실현된 풍부한 사회를 만들었음. 한편 세계는 현재도 극도의 빈곤, 기아, 난민, 재해 등의 인도적 문제, 기후변동 등의 환경문제나 전염병, 테러 등의 지구적 규모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로 상징되는 풍부한 사회를 실현한 일본이, 이러한 인도적 문제나 지구적 규모의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은 일본에 부과된 책무임.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일본만의 능력으로 현재의 풍부함을 향유하는 것은 아님. 인도적 문제나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방지하면 일본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됨. 자유무역의 혜택을 향유하고 자원·에너지, 식료 등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그 결과는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도 기여함.(ODA白書 2007)
- 일본 ODA의 특징은 5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1)개발도상국 국민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임(자조노력의 지원),¹⁾ 2)역사와 경험으로 증명된 일본의 지견(知見)이나 기술을 전하는 것임, 3)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정착·시장 경제화를 지원하는 것임.(ODA白書 2007)
- 일본정부는 일본의 원조외교 역사를 크게 5기로 나눈 바가 있음. 제1기(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전후 부흥기로 미국이나 세계은행(IBRD)에서 원조를 받던 시기이며, 제2기(1954년부터 1963년까지)는 전후 배상기로 배상을 중심으로 한 원조 요람기였음. 제3기(1964년부터 1976년까지)는 원조 신장기로 원조의 양적확대 및 형태의 다양화가 시도된 원조 성장기이며, 제4기(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계획적 확충기로 여러 차례의 중기목표에 의한 원조 확충기였음. 제5기(1989년 이후)는 탑 도너(Top Donor)기로 최대 원조 공급국으로서의 주도권(Initiative)을 발휘하는 원조 충실기였음.(ODA白書 1994, 8-9)

- 이후 10년 뒤, 일본정부는 ODA 50년의 흐름을 새로이 정리하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 1)체제 정비기(1954~1976년): 일본이 콜롬보·플랜(Colombo Plan)²⁾에 가맹하고 ODA를 개시한 이래, 원조 실시기관의 설치 및 정리통합, 원조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원조 실시체제를 정비한 시기. 2)계획적 확충기(1977~1991년): 여러 차례의 중기목표에 의해 ODA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면서 일본 ODA가 글로벌하게 전개되었던 시기. 3)정책·이념 충실기(1992~2002년): 냉전 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아래, 1992년 ODA 대강이나 1999년의 중기정책의 책정 등을 통해서, 일본의 원조정책·이념을 보다 명확하게 한 시기. 4)새로운 시대에의 대응(2003년~현재): 2003년 8월 ODA 대강이 새로이 각의결정에 의해 개정되면서 일본 ODA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 등으로 구분함.(ODA白書, 2004)
- 2004년은 일본 ODA 역사의 50주년이 되는 해였음. 일본 ODA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전 외무장관이었던 코우무라(高村正彦)는 “(ODA에 대한) 일본국민의 평가는 나쁘지만 국제적으로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히 성공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발전을 보면 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적 성공을 강조했다.(日本經濟新聞 2004.4.3. p.5)
- 오늘은 국가전략으로서의 일본 ODA 정책이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어떤 양상을 띠며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 일본 ODA 외교 관련 비판
 - 1) 일본은 2000년까지 10년간 ODA 1위국이었지만 1997년 정점에 달한 이후 점점 하강하면서 전체 액수도 줄었음. 일본의 ODA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은 유엔이 설정한 MDGs(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ODA 증액을 공표했음. 일본외교의 비장의 카드인 ODA가 액수 및 GNI 비율에서도 주요 선진국에게 뒤지는 것은 군사력을 외교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일본외교로 봐서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임.(横田洋三 2010, 28-29)
 - 2) 냉전종결과 더불어 미국은 ODA 예산을 급감시켰지만 일본은 증가일로에 있었음. 이후 일본의 국제정책에 큰 변화를 준 것은 냉전종결 자체가 아니라 걸프전이었음. 걸프전은 일본에게 PKO 법

**일본외교의 비장의
카드인 ODA가 액수 및
GNI 비율에서도 주요
선진국에게 뒤지는 것은
군사력을 외교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일본외교로 봐서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임**

일본의 ODA가 줄곧**‘아시아 중시’를****강조하는 것은****일본 ODA 제공이****전후배상으로부터****시작된 것과 깊은****관계가 있고,****1960년대~70년대에****이르러 일본의****원조형태는****전후처리로부터 ODA****공여액의 확대로****전환을 시도함**

안성립과 ODA 대강의 책정을 서두르게 했음. 일본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이전의 이라크에게 ODA를 제공했음. 결과적으로 일본도 이라크의 침략전쟁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일본의회에서는 원조기본법을 개정해서 ODA 행정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ODA에 대한 정치지배를 꺼린 외무성과 관련 성청은 정통성이 있는 지침을 빨리 공표함으로써 이런 움직임을 막으려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ODA 대강’임.(橋本光平 1999) 그럼에도 여기에는 원조를 받는 상대국의 중요성이라든가 국제적 위치 등과 같은 통상의 기준이 일본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가 포함되지 않았음. 또한 일본은 어떤 생각으로 ODA 정책을 중요시하고 전개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음. ‘대강’의 ‘기본이념’ 항목에 언급이 있지만 일본 ODA의 기본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서술되지도 않았음.(五百旗頭真 2003)

2. 냉전기 일본 ODA 정책

- 일본에 대한 원조는 미국의 점령지역 구제자금과 점령지역 경제부흥기금³⁾으로 시작했음. 일본 외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1946년부터 1951년에 걸쳐 약 6년 간 일본이 받은 원조 총액은 약 18억 달러이며 그 중의 13억 달러는 무상원조였음. 오늘날(1999년)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조 엔(무상은 약 9.5조 엔)이 되는 방대한 원조임. 이 원조가 없었으면 일본의 부흥은 생각할 수 없었음. 일본은 대략 1년에 1조 5,000억 엔의 ODA를 세계 약 160개국에 지원하고 있음. 이것과 비교하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 원조한 액수가 얼마나 고액이었던지를 알 수 있음.
-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일본을 공산주의의 침투로부터 막는다는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이 원조는 일본을 전후의 피폐로부터 회복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 이 경험이 현재의 ‘경제 인프라 중시’라는 일본 ODA의 특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ODA의 초기형태는 전후배상이었음. 1954년 일본은 버마와의 사이에 “일본·버마 평화조약 및 배상·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배상을 시작했음.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도 배상협정

이 체결되었음. 또한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몽골, 미크로네시아에 대해서 무상원조가 행해졌음. 일본의 ODA가 줄곧 ‘아시아 중시’를 강조하는 것은 일본 ODA 제공이 전후배상으로부터 시작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

- 1960년대~7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원조형태는 전후처리로부터 ODA 공여액의 확대로 전환을 시도함. 1962년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설립, 1974년 JICA(국제협력사업단) 설립 등 원조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임. 이 시기 일본 ODA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형태의 다양화가 시도됨. 유상자금이 타이드(조건부)로 공여되면서 일본기업의 수출증대 및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에 공헌했다는 평가와 비판을 동시에 받는 것도 이 시기 일본 ODA의 특징(일본의 수출촉진을 위한 배상전략, 개발수입을 위한 배상전략,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보여줌. 한편 일본 ODA가 국제적 역할 및 수단으로서 즉 ‘원조외교’로 전환하는 시기가기도 함.

3. 탈냉전기 일본 ODA 정책

- 1980년대~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ODA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ODA를 국제공헌의 중요한 수단이자 방책으로 만들어 감. 원조의 질을 높이면서 언-타이드(untied) 비율을 높이고 BHN(Basic Human Needs, 기초생활분야: 보건위생, 교육 등) 관련 원조를 확대하는 등 원조의 질을 높여갔음. 또한 국내의 매스컴이나 NGO(비정부 조직)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일본정부는 ODA 원칙을 정해 나감.
- ODA 4지침(1991년 4월 가이후<海部> 총리 발표): 1)군사지출. 2)대량 파괴 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3)무기의 수출입 동향. 4)민주화 촉진과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 인권보장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ODA를 제공한다는 것임.
- ODA 4지침의 배경: 1)걸프위기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의 군비증강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 2)냉전 종결에 따른 동구제국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가 진행된 것. 3)동구제국 및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혹은 시장경제도입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원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등의 인식이 작용했음.(ODA白書 1992, 13)

1980년대~9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ODA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ODA를 국제공헌의 중요한 수단이자 방책으로 만들었고, 국내의 매스컴이나 NGO(비정부 조직)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일본정부는 ODA 원칙을 정해 나감

**냉전종결과 더불어
전략원조의 감소,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는 소위
‘원조피로 현상=원조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평화적 수단인
원조를 통하여 일본은
국제공헌을 더욱
강조했음**

- ODA 4지침의 운용 방침: 해당국의 민주화 촉진 및 인권보장, 군사지출의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적극적 인 어프로치(Positive Linkage)를, 반대로 ODA 4지침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소극적 어프로치(Negative Linkage)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음. 이 가운데 네거티브 링케이지라 할지라도 일본의 가치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일본이 바라는 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이 지적되었음. 그런 점에서 일본의 경험 등을 근거로 보았을 때 포지티브 링케이지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일본정부는 가지고 있었음.(ODA白書 1995, 45)
- 한편 냉전종결과 더불어 전략원조의 감소,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는 소위 ‘원조피로 현상=원조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평화적 수단인 원조를 통하여 일본은 국제공헌을 더욱 강조했음. 이유는 일본이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면서 일본의 교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이를 통해 일본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이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본의 국익에 수렴된다는 인식을 일본정부는 갖고 있었기 때문임.(ODA白書 1994, 5)
- 이어 일본정부는 1992년 6월 30일,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개발원조 대강(일명 ODA 大綱)’을 결의했음. 여기서는 인도적 관점(개발도상국의 기아, 빈곤 등의 여러 문제), 국제적 상호의존(개발도상국의 안정과 발전이 세계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 요소), 환경보전(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인류적 과제) 등이 원조의 기본이념으로서 제시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自助努力)’이 일본의 원조기준으로 될 필요성이 제시되었음.(外交靑書 1993, 36)
- ODA 대강은 각의결정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일본 원조체제 가운데 핵심이 되는 지침임. 또한 냉전 종결 후의 국제정세에 대응해 일본의 원조이념을 내외에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ODA 대강을 책정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했음.
- ODA 대강 원칙: 국제연합 헌장의 제 원칙(주권, 평등 및 내정 불간섭)과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해 상대국의 요청(이른바 요청주의), 경제

사회 상황, 2국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시함. 4가지는 1)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2)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을 조장하는 것에 사용을 회피한다. 3)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 및 강화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자원을 자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적정하고 우선적으로 배분해야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군사비 지출, 대량파괴 병기 및 미사일 개발·제조, 무기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4)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촉진·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등이었음.(ODA白書 1992, 359-360)

4. 글로벌화와 일본 ODA 정책

가. 글로벌화와 일본 ODA: 1995-2000

- 1996년 5월 경제협력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OECD/DAC)는 21세기 원조목표를 정하면서 “신개발 전략: 개발협력을 통해서”를 채택했음. 이 개발전략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해야할 기한을 설정했음. 구체적으로는 1)2015년까지 빈곤인구 비율의 반감. 2)2015년까지 초등교육의 보급. 3)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남녀차별의 해소. 4)2015년까지 유아 사망률을 1/3까지 삭감. 5)임신 사망률을 1/4까지 삭감. 6)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Reproductive Health)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보급. 7)2005년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책정. 8)2015년까지 환경자원 감소경향을 증가경향으로 역전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음. 이러한 목표달성을 향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기에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개발을 자국의 문제로 인식해 개발에 임한다는 오너십(주인의식)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원조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행한다는 파트너십이 강조되었음.

- 일본정부는 1998년에 ‘대외경제협력 관계 각료회의 간사회’에서 ODA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음. 1999년에는 5년간의 ODA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원조의 질에 초점을 맞춘 정책문서로서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이하 ODA 중기정책)을 책정하는 등, 일본의 ODA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나 구체적인 원조 진행

*ODA 대강은
각의결정이기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일본 원조체제 가운데
핵심이 되는 지침이고,
일본정부는 1998년에
‘대외경제협력 관계
각료회의 간사회’에서
ODA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음*

**개발원조 위원회(DAC)는
“신개발 전략”에서
2015년까지 빈곤인구의
비율을 반감시키는 것 등
사회 개발상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음**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음. 중기정책에서는, 1996년 DAC의 “신개발전략”의 생각을 감안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오너십)과 파트너십의 중시, 각국의 실정에 맞는 원조, 각 기관과 민간 등의 역할 분담과 제휴 중시, 인간 중심의 개발, “얼굴이 보이는 원조”의 적극적 전개 등을 밝혔음. 또한 이전보다 더 빈곤대책이나 사회개발의 측면 및 인재육성이나 제도, 정책 등의 소프트 면에서의 협력을 중시할 것을 밝혔음. 한편 1999년 ODA 중기정책에서는 어려운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 양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았음.(ODA白書 2004)

○ 1999년의 ODA 중기정책: ODA白書 2005

- 기본적인 생각:

- 1) 개발원조 위원회(DAC)는 “신개발 전략”에서 2015년까지 빈곤인구의 비율을 반감시키는 것 등 사회 개발상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음. 일본도 “신개발 전략” 책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개발전략의 보급에 노력해 왔음.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신개발 전략”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정착해 가고 있음. 일본은 “신개발 전략”이 내건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ODA 대강 원칙에 따라 ODA 정책을 시행함.
- 2) “신개발 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자신의 경제적 이룩을 향한 자조(自助)노력과 주체적인 대응이 열쇠가 됨.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정책운영 능력향상 등을 통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의 촉진을 중시하고 이를 권장하며 지원해 감. 또한 원조의 적정실시와 투명성 확보를 개발도상국에 권장함. 이러한 자조노력과 주체적 대응을 전제로 일본은 다른 원조국이나 국제기관과의 협조·제휴의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함.
- 3) 원조를 실시함에 각국의 요구나 개발과제 및 상대국의 의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발도상국과의 정책대화나 사전조사에 기초해서 나라마다의 사정에 적합한 효과적·효율적인 지원에 노력함. 그 때 ODA가 피원조국이나 대상분야가 기득권화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또한 엔 차관 등 원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는 상황변화에 대응해 적시에 적절히 재검토를 실시함.
- 4)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국제기관, 민간부문, 민간단체(NGO) 등 모든 주체의 역할분담과 연대를 도모하는 포괄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최근 아시아나 중남미 등의 개발에서 무역이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민간 활동의 촉진과 민간자금의 유입이 촉진되도록 환경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나 격차시정 등에 유의해서 민간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시함.

5) 경제성장은 인간의 복지향상의 수단으로서 필요하고 ‘인간중심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결함.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균형 있게 지원해 나감. 또한 인간중심의 생각에 근거해, 후발 개발도상국(LLDC)⁴⁾에 특별히 배려함. 또한 환경악화, 기아, 약물, 조직범죄, 전염병, 인권 침해, 지역분쟁, 대인지뢰 등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인간 안전보장’의 관점에도 충분히 유의해 나감.

6) 원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의 이해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의 “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피원조국에게 일본의 원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한층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일본기업의 사업 참가기회의 확대에 유의하면서 한편 대학, 싱크탱크, 지방 자치체, NGO 등에 의한 ‘국민 참가형’ 협력의 추진에 노력함. 민간부문을 포함한 일본의 경험이나 기술, 노하우의 활용을 도모한다.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도 충분히 활용해 나감. 그리하여 국제사회와 조화 있는 발전 가운데 일본의 활력을 유지하고 일본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중점과제: 1) 빈곤대책과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기초교육, 보건 의료, 여성지원). 2) 경제·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 3) 인재육성·지적 지원(인재육성, 지적지원, 민주화 지원). 4) 지구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응(환경보전, 인구 및 에이즈 문제, 식료, 에너지, 약물). 5)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등 경제구조 개혁 지원. 6) 분쟁과 재해에 대한 지원. 7) 채무문제에 대한 대응.

○ 2000년 9월에 개최된 유엔 밀레니엄·서미트에서는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고 이후에 동 선언의 개발관련 부분과 DAC 신개발전략을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설정되었음. 이 MDGs는 인류장래의 번영을 향한 기초적 조건을 정리한 중요한 개발목표로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 개발목표가 되었음.(ODA 白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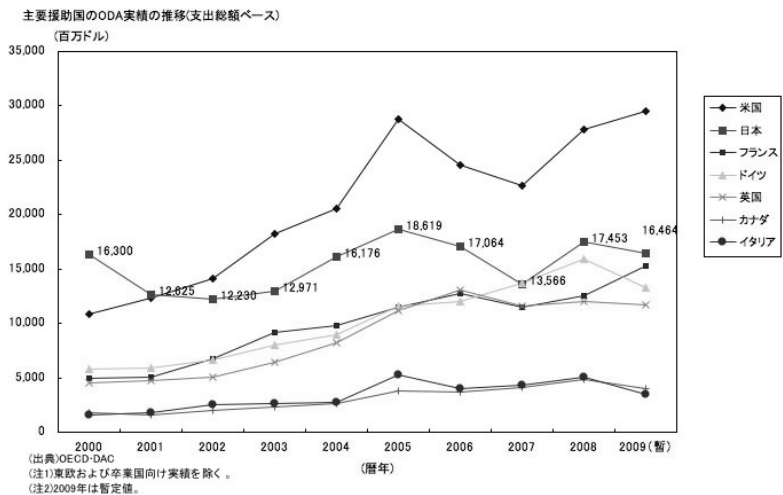
*2000년 9월에
개최된 유엔
밀레니엄·서미트에서는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고 이후에 동
선언의 개발관련 부분과
DAC 신개발전략을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가 설정되었음*

21세기 일본 ODA는
 ‘국민 참가형 원조’
 추진을 위해서 관민의
 제휴(Partnership),
 폭넓은 국민의 참가
 (Participation),
 쌍방향 교류(Public
 Private Interaction)
 의 3P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

나. 글로벌화와 일본 ODA: 200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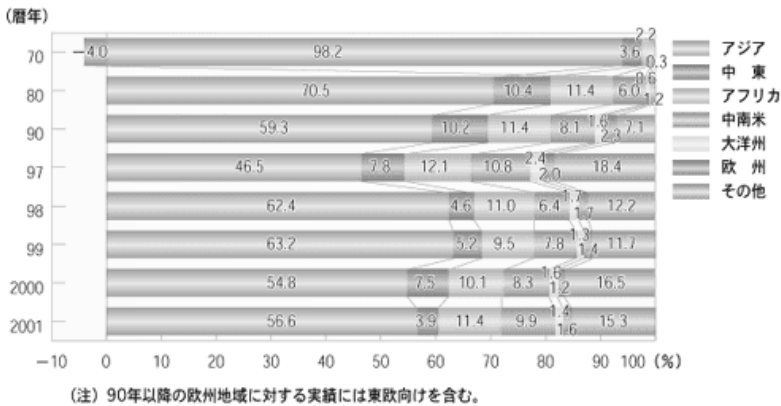
- 21세기 일본 ODA: ‘국민 참가형 원조’ 추진을 위해서 1)관민의 제휴 (Partnership), 2)폭넓은 국민의 참가(Participation), 3)쌍방향 교류(Public Private Interaction)의 3P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ODA白書 2001)
- ODA 개혁 추진: ‘제2차 ODA 개혁 간담회’ 최종보고에 기초해 국민 참가, 투명성 확보, 효율성의 향상을 키워드로 1)국민의 마음과 지력과 활력을 총결집한 ODA를 실시한다, 2)전략을 가진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ODA를 실시한다, 3)ODA 실시 체제의 발본적인 정비라는 기본관점에서 ODA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음.(ODA白書 2001)
- 격차확대, 빈곤의 심각화, 환경문제, 전염병 등 지구규모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글로벌화의 진전과 2001년 9월의 미국 동시다발 테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개발문제에 대해 관심이 증대했음. 게다가 냉전 종료 후 분쟁, 특히 국내분쟁이 빈발하면서 분쟁예방, 긴급 인도지원, 평화정착과 국가건설 등에 대한 대응이 증가했음.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 감소경향에 따라 개발도상국에게 타격을 주었음. 이에 2002년 들어 미국과 EU는 ODA의 대폭 증액을 표명했음.(그림 1 DAC 주요국의 ODA 실적 추이 2000-2009 참조)

〈그림 1〉 DAC 주요국의 ODA 실적 추이 2000-2009



- 일본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사감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경제섹터 지원 등을 통한 무역·투자 촉진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을 가졌음.(ODA 白書 2002)
- 동시에 “전략을 가진 일본 ODA의 전개”를 강조하면서 국제적으로 개발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일본도 한정된 ODA 자금을 보다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ODA 전략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중점이나 우선순위를 정해 가는 것이 필요함이 강조되었음.(ODA 白書 2002) → <참조> 전략의 문제가 백서에서 표제로 등장하면서 강조된 것은 2002년판이 처음임.

〈그림 2〉 일본 ODA의 2국 간 지역별 배분 추이 1970-2001



일본 ODA의 새로운 전개는 향후 ODA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점배분, 평화구축의 중시, 인간 안전보장의 중시, 국민참가·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실시함

- 일본 ODA의 새로운 전개: 향후 ODA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점배분, 평화구축의 중시, 인간 안전보장의 중시, 국민참가·얼굴이 보이는 원조를 실시함. 또한 원조이념이나 원조 전략을 보다 한층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외무성은, 2002년 12월에 ODA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ODA 대강을 재검토하는 데에 다음의 점을 중시한다고 밝혔음. 1)인도적 견지 등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일본의 안전과 번영 등을 더해 ODA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2)아시아 중시(그림 2 일본 ODA의 2국 간 지역별 배분 추이 1970-2001 참조), 평화구축 분야에 대한 ODA의 적극적인 활용, 인간의 안전보장 등을 중점화함. 3)정책입안·실시체제의 명확화, 국별 원조계획의 충실 등 전략성, 기동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시킴.(ODA 白書 2002)

일본정부는 개발도상국 원조 개정안(이른바 ‘신 ODA 대강’)을 2003년 8월 29일 각의(閣議)에서 결정했고, 이 개정안에서 ODA 목적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 ODA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가치가 있도록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명시했음

○ 일본정부는 개발도상국 원조 개정안(이른바 ‘신 ODA 대강’)을 2003년 8월 29일 각의(閣議)에서 결정했음. 이 개정안은 1992년 이래 처음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ODA 목적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 ODA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안전과 번영의 확보에 가치가 있도록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명시했음. 이는 일본이 ODA를 국제적 빈곤이나 국가 간 경제격차 해소는 물론 ‘국익중시’에 중점을 두었음을 의미함. 이러한 최종안이 마련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익중시’에 대한 비판도 있었음.(朝日新聞 2003.8.29, p.4)

○ 주요국의 원조이념 및 지침의 예

국가별(기본안) 발표 연도	주요 내용
일본(ODA 대강) 1992년 각의결정 * 2003년 개정(각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개발의 양립 ▪ 군사 및 분쟁을 조장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임 ▪ 대량파괴무기 개발/제조, 무기수출 등에 주의를 기울임 ▪ 민주화 촉진, 시장경제 노력, 인권/자유에 대한 배려
미국(4 원칙) 2001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넓은 연계를 통한 개발에 참여 ▪ 경제성장과 농업/무역을 중시 ▪ 보건 분야에 대한 지구규모의 지원 ▪ 인도적 원조와 민주화 지원
독일(행동계획 2015) 2001년 각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대책과 채무변제 ▪ 평화정책을 위한 원조 ▪ 2국 간 원조에의 중점 ▪ 민간 등과의 연계강화
영국(국제개발법) 2002년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육 보급 및 유아 사망을 낮추기 ▪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의 증가 ▪ 무역장벽 낮추기

출전: 朝日新聞 2003.6.28, p.3. * 필자 삽입

○ 2003년의 ODA 대강:

- 기본방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DA를 한층 전략적으로 실시함. 1)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지원, 2)‘인간 안전보장’의 시점, 3)공평성의 확보, 4)일본의 경험과 지견(知見)의 활용, 5)국제사회와의 협조와 제휴.
- 중점 과제: 1)빈곤사감, 2)지속적 성장, 3)지구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

응, 4)평화구축.

- 원조실시의 원칙 : 상기 이념에 따라 국제연합 헌장의 제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 불간섭) 및 이하의 여러 가지 점을 근거로 개발도상국의 원조수요, 경제사회 상황, 2국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ODA를 실시함. 1)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2)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예의 사용을 회피한다. 3)테러나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국내자원을 자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 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무기 수출입 등의 동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4)개발도상국의 민주화의 촉진, 시장경제 도입노력 및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ODA白書 2003)

○ 2005년의 중기정책:

- 중기정책의 위상:

- 1)2003년 8월 각의결정에 의해 개정된 ODA 대강은 “이 대강 아래 ODA 중기정책이나 국별 원조계획을 작성해서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도모한다”고 밝혔음. 또한 1999년 ODA 중기정책은 1992년 ODA 대강 아래 책정된 것이어서 책정된 지 5년이 경과했음. 이에 이번 ODA 중기정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중기정책(이른바 ‘신 ODA 중기정책’)을 책정했음.
- 2)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와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개발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다발하는 분쟁이나 테러를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즉시 협조해서 대응을 강화해야 할 문제임. 또한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연휴 추진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국제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일본은 ODA 대강이 밝힌 ODA 목적에 근거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ODA 활용을 통해서 일본의 지위에 어울리는 역할을 완수할 생각임.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 이번 ODA 중기정책에서는, ODA 대강의 기본방침과 중점과제에 대한 일본의 생각이나 어프로치,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ODA를 한층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3)국별 원조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ODA 대강에 더해 대강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신 ODA 중기정책’을 병행하여 책정함. ‘신 ODA

2005년의 중기정책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일본은 ODA 대강이 밝힌 ODA 목적에 근거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ODA 활용을 통해서 일본의 지위에 어울리는 역할을 완수하려고 함

**개발협력의 3대
과제(빈곤삭감, 평화에
대한 투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후원)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원조를 실시해 나감**

중기정책'은 향후 3~5년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서 그 이전에라도 필요에 응하고 실시상황을 평가한 다음 개정함.

4)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ODA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조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가를 촉진함. 또한 평가를 충실하게 하며 효과적인 원조 실시를 위해 노력함.

- 개발협력의 이념: ODA를 중핵으로 일본의 개발협력 이념은 “열린 국익의 증진; 세계인과 함께 살고, 평화와 번영을 만든다”이며 이러한 이념의 배경에 있는 기본적 생각은 1)일본의 평화와 풍요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 속에서 실현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일본은 계속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하며 이는 일본에게 보다 좋은 국제환경을 제공해 줄 것임. 2)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선활동’이 아니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임. 3)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ODA 뿐만 아니라, 관민의 ‘사람’, ‘지혜’, ‘자금’, ‘기술’을 모두 결집한 ‘올·재팬’의 체제로 개발협력에 임할 필요가 있음.(日本外務省. “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一最終とりまとめ”, 平成22年6月29日)
- 일본 ODA의 평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외교이념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음. ODA는 이러한 일본의 외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성장에서 보이듯 개발도상국·지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음. 그 자체가 일본외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ODA의 대상지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적 지위 향상, 일본제품의 시장 확대, 대일 감정의 개선 등 일본에게도 유익한 효과를 가져왔음. 게다가 일본의 치밀하고 세심한 원조가 국제사회로부터 높게 평가 받고 있음.(日本外務省. “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一最終とりまとめ”, 平成22年6月29日)
- 개발협력의 3대 과제(빈곤삭감, 평화에 대한 투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후원)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원조를 실시해 나감. 이를 위해 대상국마다 원조의 방향성을 명확화(원조의 선택과 집중, 국제협력 기획입안본부의 적극적 활용, 국별 원조계획의 제도개선)

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어프로치⁹⁾를 강화함.(日本外務省, “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最終とりまとめ”, 平成22年6月29日) → 요청주 의에서 협의주의로의 전환을 의미.

- 일본 ODA 50년의 평가: 1)반세기에 걸쳐 세계에 공헌했음: 2)동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과 성과에 공헌했음: 3)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에 공헌했음.(ODA白書 2004)
- 일본 ODA의 향후 전망: 일본의 ODA는 ‘신 ODA 대강’이 내건 이념, 중점 등에 따라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투명성이 높은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정부는 원조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ODA에 기대되는 성과의 명확화, 정책협의를 통한 원조 수요의 정확한 파악, 결과중시의 어프로치, 원조협조의 강화, 평가의 확충 등), 원조 진행방식의 개선(현지 ODA 태스크 포스의 기능 강화, 관계부처나 NGO와의 제휴 강화, 정보공개의 강화, 국민 참가의 확대), 원조실시 체제의 정비(원조실시 기관과의 연계 강화, 인재육성, 대학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한층 더 추진해서 일본의 원조가 보다 좋은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나갈 생각임.(ODA白書 2004)
- 일본 ODA는 일본의 외교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음. 따라서 외교 정책을 염두에 두고 ODA의 수요를 근거로 해서 전략적으로 국제협력의 기획·입안을 실시함. 2006년 2월의 ‘해외 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¹⁰⁾는 최종보고서에서 ODA를 비롯해 그 외 정부자금, 민간자금까지를 시야에 넣은 해외경제협력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령탑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음. 이에 2006년 4월,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해외 경제협력 회의’¹¹⁾가 내각에 설치되어 해외 경제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기동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실시하게 되었음. 같은 달, 외무대신을 본부장으로 ‘국제협력 기획입안 본부’가 외무성에 설치되어 외교정책 전체의 전략적 방향성이나 ‘해외 경제협력 회의’의 심의를 근거로 지역마다의 원조방침, 분야·과제마다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해, 외교정책 전체 안에서의 자리매김을 항상 확인하면서 국제협력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음.(ODA白書 2007)

**일본의 ODA는
‘신 ODA 대강’이
내건 이념, 중점 등에
따라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투명성이
높은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일본 ODA는
일본의 외교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음**

**한국 ODA의 우선
해결과제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양적 확대이고,
한국 ODA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원조의
기동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5.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에 주는 합의

- 순수성: 1946년에서 1976년의 시기,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해 원조를 활용함으로써 원조이념의 부재, 상업원조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 시기 ODA는 아시아 중시, 수출촉진, 개발수입, 경제안전보장 등의 외교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함. 한국의 ODA도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실리우선의 원조를 제공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봄.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리보다는 장기적인 한국의 ‘국격’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외교의 정통성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실리우선의 ODA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지속성: 한국 ODA의 우선 해결과제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양적 확대임. 그 바탕 위에 지역적 안배를 통해 ODA는 전략적으로 한미협력, 국제협력을 위한 보강제여야 할 것임. 나아가 한국 ODA는 장기적인 전략(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어떤 분야든 전략도 없이 일회적이어서는 안 됨.
- 체계성: 한국 ODA는 원조대국의 1/10 정도의 액수로 적음. 이에 한국 ODA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원조의 기동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등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를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이 ODA의 총괄기획, 평가검토, 수정/보완의 토털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함. 부처 간 생색내기와 힘겨루기가 선행한다면 그나마 적은 액수의 ODA도 빛을 바랄 것임. 물론 토털 시스템 구성은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작용해서는 안 되기에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되어야 함.

기획 및 감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길효(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주석

- 1) 일본이 말하는 자조노력이란, 개발도상국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국의 장래에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의 국민이 스스로 자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2) 1950년 1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영연방 외무장관회의에서 캐나다의 제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콜롬보계획이라고 한다. 당초의 참가국은 영연방 제국뿐으로, 참가국 중 아시아 제국(피원조국)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식량·운수·동력이나 교육·위생 등의 개발을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원조하는 6개년 계획(1951~1957)으로 발족하였는데, 그 후 수차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피원조국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거의 전역에 걸쳐 있으며, 또 원조국으로서 미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 각국이 참가했다.
- 3) 흔히 GARIOA(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Fund, 占領地域救濟政府基金)와 EROA(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 Fund, 占領地域經濟復興基金)로 약칭한다.
- 4) 개발도상국 가운데 특히 개발이 늦은 나라를 지칭. 유엔의 개발위원회가 1인당 GDP(1999년 당시 899달러), 인적 자원개발의 정도(평균수명 등), 경제구조의 취약성(GDP를 접하는 제조업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999년 당시 48개국이 지정되었다.
- 5) 이전의 어프로치는,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요청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원조실시를 검토하는 어프로치였다(요청주의). 프로그램·어프로치는, 개발도상국과의 정책협약에 근거해 개발과제 해결을 향한 개발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거기로부터 구체적인 원조대상(프로젝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협약주의).
- 6) 2005년, 정책금융개혁의 일환으로서 엔 차관 실시기관인 JBIC(국제협력은행)의 업무취급이 논의되었다. 그 때 JBIC의 업무는 1)정부개발원조의 전략적 활용, 2)“얼굴이 보이는 정부개발원조”를 위한 다른 원조기관과의 관계정리, 3)전략적인 원조정책을 기획입안 및 실행하기 위한 정부 내 체제정비를 검토해야한다는 관점에서 2005년 12월, 내각관방장관 아래에 ‘해외 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어 해외 경제협력의 정부 내 체제·실시기관 정비에 대해 2개월 반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 7) 해외 경제협력 회의의 구성원은, 내각총리대신(의장),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으로 구성.

참고 문헌

- 박홍영. 2006. 『일본 ODA와 국제정치』(서울: 도서출판 한울).
- 日本外務省經濟協力局編. 1992. 1994. 1995. 2001. 2002. 2004. 2005. 2007 各年度版. 『我が國の政府開發援助』本論ではODA白書.
- 日本外務省. 1993 各年度版. 『わが外交の近況』本論では外交青書.
- 日本外務省. 「ODA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最終とりまとめ」平成22年6月29日. 『日本經濟新聞』
- 『朝日新聞』
- 五十嵐武士編. 1990. 『日本のODAと國際秩序』(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 五百旗頭真. 2003. 「外交戰略のなかの日本ODA」『國際問題』No.517(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03年4月).
- 橋本光平 1999 「日本の援助政策決定要因」、外交政策決定要因研究会編 『日本の外交政策決定要因』(東京: PHP研究所).
- 横田洋三. 2010. 「日本のODA外交の危機: 効果的展開のための提言」『國際問題』No.588(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2010年1/2月).
-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페이지. <http://www.oecd.org/>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